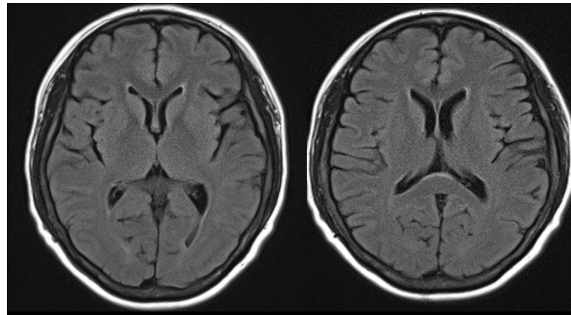


Irinotecan 항암제투여 중 발생한 구음장애(dysarthria): 증례보고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최수현, 정도영, 남은미

서론: Irinotecan(CPT-11)은 Topoisomerase I inhibitor로써 대장암, 췌장암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이며 부작용으로는 설사, 백혈구감소증 등이 대표적이다. 저자들은 FOLFIRINOX요법을 시작한 췌장암 환자에서 irinotecan 투여 중 발생한 구음장애를 경험하여 임상양상과 대처방법에 대해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 55세 여자가 췌장암 간전이를 진단받아 Nab-paclitaxel, gemcitabine 항암제치료후 췌장암부위에 완화적 방사선치료를 받고 경과관찰 중 폐, 간, 뼈로 전이가 진행하여 FOLFIRINOX (5-fluorouracil, leucovorin, irinotecan, oxaliplatin)요법을 계획하였다. 환자는 10년전 유방암으로 수술 및 항암제치료 후 완치된 바 있었으나 다른 동반질환은 없었고 ECOG 활동도 1점으로 항암제 투약 전 진찰 및 혈액검사에서 이상소견은 없었다. 환자는 Irinotecan 투여 시작 1시간 뒤부터 침 분비 증가와 혀가 마비되는 느낌을 호소하였고 입 주변부 근경련이 관찰되며 구음장애를 호소하였다. 이에 시행된 신체진찰, 혈액검사, 뇌자기공명영상에서 이상소견은 없었다. 환자의 증상은 Irinotecan 투약 중지 후 점차 호전되어 약 2시간 후에 완전히 소실되었다. 이후 항암제치료 시에는 irinotecan투여 전 atropine을 전처치하고 irinotecan의 주입속도를 낮췄는데 구음장애 증상은 경미한 정도로 짧게 나타났다 호전되었고 점차 atropine전처치만으로 구음장애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고찰:** Irinotecan 투여시 발생한 구음장애는 매우 드문 부작용으로 국내 보고는 찾을 수 없었다. 구음장애 부작용의 정확한 메커니즘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irinotecan의 콜린성 반응과 연관성이 추측되고 있으며 atropine 전처치를 사용해 볼 수 있다. 암환자에서 irinotecan포함한 항암제치료 중 구음장애 등의 급성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한다면 뇌병변 발생 등의 다른 원인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지만 irinotecan에 의한 구음장애로 판단된다면 증상이 가역적이며 후유증이 없어 추후 치료시 제한할 필요는 없었다.



담관암 수술후 복부 중간선 절개 부위에 발생한 이소 골화 1예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박종완, 최문영

서론: 이소 골화(heterotopic ossification)는 근육, 힘줄 등 골격계가 아닌 다양한 연조직에서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골 형성을 의미하며, 주로 정형외과 수술후 관절 주변에 발생하여 통증 및 운동 장애 등의 증상을 초래한다. 드물게 중간선 절개(midline incision)를 통한 복부 수술 이후에도 절개 흉터에 이소 골화가 발생하여 복부 통증이나 불편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담관암 수술후 복부 불편감을 호소한 환자에서 중간선 절개 부위의 이소 골화를 진단하고 수술적 제거로 치료한 증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65세 남자가 두달 전부터 앓을 때 배가 만치는 느낌의 복부 불편감으로 내원하였다. 1년 3개월전담관암으로 유문 보존 체십이지장 절제술을 받았고, 이후 7개월 전까지 보조 항암화학요법을 받았다. 신체 검사에서 상복부에 담관암 수술로 인한 중간선 절개 흔적이 있었고, 그 하부로 세로로 길쭉한 형태의 덩어리가 딱딱하게 촉진되었으며 압통은 없었다. CT 검사에서 상복부 전복벽에 검상돌기 직하부부터 배꼽 쪽으로 수직으로 위치한 선형의 석회화 병변이 관찰되었으며(사진1), 중간선 절개 부위에 발생한 이소 골화가 의심되었다. 앓아 있기 힘들 정도의 심한 복부 불편감을 호소하여 외과적 수술로 해당 병변을 전절제하였고, 조직 검사에서 단순 석회화가 아닌 뼈연골조직을 확인하여 이소 골화로 최종 진단하였다. 환자는 수술 뒤 1년째 불편감 없이 경과 관찰 중이다. **결론:** 드물지만 복부 수술후 중간선 절개 부위에 이소 골화가 발생할 수 있고, 복부 불편감이나 복통을 유발하는 경우 수술적 전절제로 치료할 수 있으므로, 복부 수술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가 복부 불편감을 호소할 때 감별 진단으로 고려해야 하겠다.

